

# 세계 최초 대기환경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 발사 성공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해양·환경 위성 '천리안 2B호'가 한국 시간 19일 오전 7시 18분(현지시간 18일 오후 7시 18분)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 쿠루(Kourou)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사진).



1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천리안 2B호는 발사 약 31분 후 고도 약 1,630km 지점에서 아리안-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발사 후 37분 뒤인 오전 7시 55분에는 호주 야사라가(Yatharagga)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천리안 2B호의 분체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고, 발사체를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 전이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천리안 2B호는 앞으로 약 2주간 5차례의 전이궤도 변경을 통해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만6천km의 정지궤도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정지궤도 안착 후에는 보다 정확한 대기 및 해양환경 관측 정보들을 확보하기 위해 수개월간 궤도상 시험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면 10월부터 적조와 녹조 등 해양환경 정보를,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같은 대기 환경 정보를 관측해 한반도에 보내게 된다.

지난 2011년 개발에 착수해 약 9년간

의 수많은 노력 끝에 탄생한 천리안 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 등 공기 중 존재하는 에어로졸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기체 상태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이다.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아시아 지역을 주간 상시 관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 미세먼지의 생성·발달과 이동 경로,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 국내 어느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리안 2B호는 미국('22년 이후 발사) 및 유럽('23년 이후 발사)의 정지궤도 대기환경 관측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 감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도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사회의 환경 보존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사상 최대

서울의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값 격차가 사상 최대인 6배를 넘어서며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초고가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결과로,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서 단행한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이런 양극화 추이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한겨레'가 전날 발표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1월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6.1로, 2012년 1월 첫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매매가격 평균을 하위 20%(1분위) 매매가격 평균으로 나눈 수치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집값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배율이 클수록 상·하위 집값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서울의 상·하위 아파트값 격차 확대는 지난해 시가 15억~20억원대 수준의 초고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의 급등세를 보인 것이 주된 배경이다. 상위 20%(5분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 16억1,272만원이나 올해 1월 18억

1,069만원으로 1년 만에 12.3% 상승했다.

반면 하위 20%(1분위) 아파트값은 3억1,294만원에서 2억9,715만원으로 되레 5%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12년 1월 4.7에서 부동산경기 침체기였던 2015년 1월 4.3까지 좁혀졌다. 2018년부터 이 격차가 5배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연간 5.1~5.3배 수준을 보이다가 올 들어 처음으로 6배를 돌파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5분위 배율이 가파르게 커진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낙담 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이 5.2% 오르는 등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조치가 저·고가 아파트값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지난해 12월 셋째 주 매매 상승률은 0.4%였으나 지난주에는 -0.13%를 보이며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이후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